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사람을 위해 있는 안식일 성경: 마가복음 2장 18-28절

Tag: 안식일,복음,율법,신약,마가복음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 이렇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2:18-28)

하루는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잔치는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념하여 베푸는 잔치였다.

레위는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당시에 세리라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는 동료들도 불렀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들도 많이 앉아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 잔치집에는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있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당시의 오지라퍼들이었다. 이들은 사람을 사랑하기 보다는 다만 자기 식대로의 인생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문제는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좋다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생각이 강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식대로 살기를 은근히 강요하는 부류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도 싫고,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은 더 싫었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있으니 심기가 불편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금식 중이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많아진다. 더군다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그렇다. 당시 그들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대 전통에는 따로 금식하는 절기가 있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더러 그 금식하는 날이 늘었으며, 놀랍게도 당시에는 금식 경쟁 같은 것이 있어서 심지어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자들도 있었다. 아마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깊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선생님을 따라 금식을 자주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잔치를 벌였다. 금식을 하신 적은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없다. 마지막에는 성만찬으로 마무리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곧바로 생

선을 드셨다. (예언하신 대로 진짜로 3일간 금식하심)

금식매니아들에게는 입이 떡 벌어질 일이다.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경건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율법주의자들은 꼭 즐거움이나 기쁜 일들을 폐지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긴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홍약의 결박을 푸는, 다시 말해서 ‘회개’가 동반된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금식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금식에서는 방점이 ‘회개’에 찍힌다.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금식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경건한 척하고 교만하기 위한 금식이었다. 자기는 배고프고, 하나님은 어이없고,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민망한 금식이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금식인가?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21-22절 말씀에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생베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의 예를 들어서 생각과 문화의 변화를 상기시키고 계신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명, 새로운 돈벌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유행,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그렇다. 한국교회가 이 패러다임 변화에 가장 둔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

의 가치에 눈이 고정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보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 말라기 시대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금식, 기도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3번 기도하기,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등등. 새로운 생각이나 가치라 할지라도 전통 규정으로 판단하는 오지랴가 되었다.

한국교회의 전통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새벽기도회, 금주, 금연, 주일성수, 성경통독, 십일조, 선교사 파송, 교회개혁, 전도, 종말신앙, 휴거신앙, 이신칭의, 혼전순결, 예수천당 불신지옥, 주일학교, 교회봉사 등등.

그러나 오늘날 이런 가치들이 진정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 + v(vitality) = 율법 (반복 행동)

율법 × Jesus = 복음

복음 = Jesus(율법-Pharisaism)

Phariseism = (자기열정 ⊃ 정죄감 + 오지랴충동) → 무의미한 행동

Jesus = 길 × 진리 × V(eternal life)

JesusV = H.S

율법주의 = 율법 + Pharisaism - Jesus

한국교회는 초보 구도자를 위한 새로운 가치들을 개발해야 한다. 30-40대 한국교인들이 벌써 스스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른 교인들에게 오지랴 테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만남 자체를 꺼리고 있다.

23절 부터는 안식일 이삭 추수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복음서에는 안식일 논쟁이 많다. 그만큼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들이 많았고,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안식일

정신도 사라지고, 율법은 사람들에게 족쇄가 되었다.

심지어는 그것이 선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안식일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가 벌어지기도 했다.

말 잘하는 예수님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의 사건을 예를 들었다.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도 진설병을 내 놓지 않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위해서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섬기는 것은 아니다.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성수주일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주일을 활용하는 것이지 성수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애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성수주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²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지만,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안식일에 더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며, 안식일의 주인공이시다. 모든 날보다 더 중요하게 기념하도록 하신 것이다.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 옮겨 왔다. 이는 다분히 당시에 있는 모든 종류의 안식일 관련 율법주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였다.(안식일율법주의로부터 주일로의 출애굽) 초대 교회는 안식일에서 탈출해서 주님의 날에 안식하였다.

그리고 이 날은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다.

이 날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은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날이다.

아멘.

공무원 철밥통 사수 율법주의
검찰청 줄잘서기식 기소주의
헌법재판소 여론몰이식 판결주의

입장의 이유-자기의 처지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의미한다.
참 기독교인의 경우-자기의 처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정치적 성향을 의미한다.

사랑의 단계
잘해주면 사랑, 그렇지 않으면 변한 사랑
기브 앤 테이크 준 만큼을 기대하는 사랑
도덕적 기준이 맞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는 사랑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사랑 -여기서 부터는 백년해로의 사랑-
정 때문에 산다
보기만 해도 기쁜 사랑 -사랑하는 재미에 산다
배신하지 않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찬양예배>

제목 : 황하의 물결 성경: 시편 146편 5-9절

Tag: 황하, 최황규목사, 중국, 한족, 인권

5 아굽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 여호와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146:5-10)

최황규목사 소개 -경기도 여주에서 의정부로 이사. 큰형이 법학도였는데 북한을 선택함. 인민군의 학살로 동네에 위협을 느껴 의정부로 도피. 가난하지만 신학도가 됨.

-시대의 아픔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는 포기함.(번역가) 황하의 물결 소개

중국인 망명인 쉬버(한족;중국 민주화 운동가)에게 도움을 베풀 그가 난민으로(망명인정) 인정받을 수 오래도록 도움을 베풀.(불법체류자가 아니라) 그러나 법무부는 그가 중국 민주화 인사임을 이유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다른 나라로 갈 것을 권유함. 난민신청을 철회하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함. 그러나 무작정 출국명령.

인권 사각지대 중국
인권 사각지대 북한
뇌물과 부패의 나라 중국
1989년 천안문사태. 6.4민주화 운동

자유주의 신학과의 충돌
조선족과의 동행
동북아신문 편집
1999년 6월6일 조선족교회 예배 시작 -서경석목사
조선족동포와 함께한 전국노래자랑
14만 조선족. 2000년 9월 11일 추석. 경희대 대운동장. 15000명운
집.

나를 잡아가지오! 2001.5
브로커에게 폭행당한 밀입국자.
출입국관리소 당국의 강제추방에 항거 나를 잡아 가지오.

2001.6.29. 십자가 대행진. 백주년기념관에서 집회 및 시위, 거리행
진.

강제추방 중단하라
동포들의 피눈물 외면치 말라
법무부는 동포사냥꾼이나

2001.10.3. 제2회 조선족 한가위 대잔치. 효창운동장.

2002.12 화성외국인보호소 엄영광씨. 3천만원 빚. 강제추방.
보호소에서 단식투쟁. 일단 중국으로 가서 비자 받고 다시 입국하면
처리하겠음.

현행법상 외국인보호소에서 바로 풀어주지는 못함.

최목사가 중국까지 동행해서 중국한국대사관에 감.

2003.9.7. 중국인교회 첫 예배

중국인들의 근성

자오위메이, 요녕성 출신. 사기 결혼으로 입국. 당국은 위장결혼 혐의를 씌워 구속. 그러나 최목사가 불구속 수사요청. 결국 사기 결혼으로 밝혀짐.

아들람교회

2010.1.24. 대림동으로 이전. 권리금 2천만원 도림교회에서.

현재 중국의 문제.

중국은 패권국이 될 것인가?

1990-2010 중국의 부상

2008 미국 월가의 붕괴

2016년부터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을 예측

그러나 1인당 개인 소득은 미국 59745달러, 중국은 8582달러.

세계 평균 10038달러에 못 미침.

요즘 화두는 '대박난 미국' 에너지 붐.

농민공. 1인 1자녀, 호적에 오르지 않는 사람들.

며칠전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자회견

"중국, 미국 역할 대신하지 못해...中美는 동료 돼야"

"중국은 자기자신을 현대화하기에도 갈 길 멀어"

정규재 PenN 대표 "도발하던 모습 없어지고 중국이 완전히 옆드렸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협력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에 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중미(中美)는 경쟁을 할 수는 있지만, 적수가 될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동료가 돼야 한다"

